

## 10. 탐라(耽羅) 왕국의 궁전(宮殿)은 어디에...<sup>19)</sup>

- ◎ 옛 월대동(月臺洞)에 탐라궁전(耽羅宮殿)이 ?
- ◎ 성주청(星主廳)은 지금 우체국 자리

탐라의 왕궁은 어디에 있었을까. 지금 그곳에 남아 있는 유적(遺蹟)은 없을까. 도내의 고로(古老)들 사이에 가끔 화제에 오르기도 하지만 특히 외지에서 온 학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하겠다.

필자도 벌써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추적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유적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다. 그러나 여기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체로 그 위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.

『동문선(東文選)』에 나오는 정이오(鄭以吾)의 성주고씨가전(星主高氏家傳)을 보면 “모흥혈(毛興穴)에서 태어난 세 사람은 일본국에서 온 세 공

19) 『한라일보』 제54호 (1989. 06. 24).

주를 맞아 각각 나누어 장가를 들고 모흥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.”고 기록하고 있다. 이런 기록은 그 밖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의 삼성혈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읍(都邑)을 마련하여 정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.

### 칠성단(七星壇) 마련 건도(建都)

다음 「영주지(瀛洲志)」나 『고려사(高麗史)』·지리지(地理志) 등에서 볼 수 있는 삼성(三姓) 개국설화에서는 이들 세 을나(乙那)가 배분 순서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(一), 이(二), 삼도(三徒)로 나누어 건도(建都)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. 이 3도에 관해서는 제주, 대정, 정의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주성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.

그 가운데 군장(君長)은 일도(一徒)[제일도(第一都)]에 도읍을 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. 물론 이때의 일·이·삼도가 지금의 구역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. 그러나 대체로 제주성내 이른바 대촌(大村)을 중심으로 배분되었던 것은 확실하다.

건도할 당시의 근거를 북두칠성(北斗七星) 모양으로 배치한 사실을 여러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다. 그리하여 ‘칠성대촌(七星大村)’이라고도 하였으며 지금의 칠성로(七星路)도 여기서 생겨난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. 이 칠성도(七星圖)는 칠성동(七星洞) 즉 일도로부터 이도, 삼도동에 걸쳐 있었으며 그 칠성단 터가 8·15 뒤까지도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지금의 삼도동 지역에 해당되는 관덕정 서쪽 일대를 과거에는 ‘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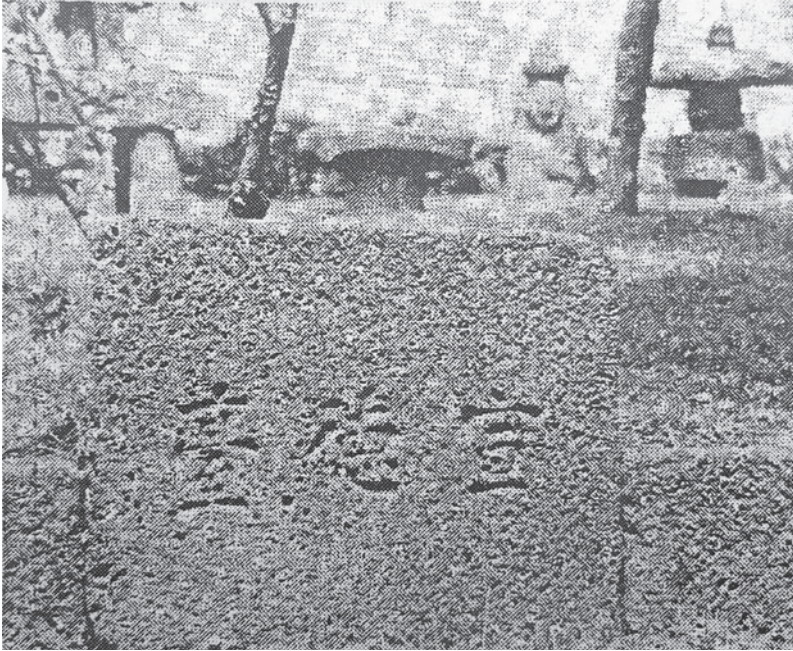
대동(月臺洞)이라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유래한다. 즉 칠성도의 기축이 되었던 월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.

『노봉문집(蘆峯文集)』을 보면 1735년(영조 11) 김정(金倣)이 제주목사로 도임하고 이 월대를 수축한 기록이 나온다. 여기에 보면 “월대는 관덕정(觀德亭) 뒤에 있다. 칠성도(七星圖)가 성내에 산재해 있어 돌과 흙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나 모두 허물어져 버렸다. 이제 겨우 그 터만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수축토록 하였다.”고 말하고 여기가 옛 도읍의 유적임을 밝히고 있다.

고도유적일황량 故都遺跡日荒涼  
저처인위총훼상 著處人爲摠毀傷  
왕복평판조일리 往復平阪照一理  
만성성월복생광 滿城星月復生光

옛 도읍의 유적은 날로 황량해지고  
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훼손시켜 버렸네.  
널직한 언덕을 오가며 큰 이치를 알아내고  
별과 달이 성에 가득 차게 다시 빛을 살렸네.

김정은 이 월대를 수축하고 나서 ‘선덕대(宣德臺)’라고 명명하였다. 이것은 홍화각(弘化閣)과 관덕정을 이웃에 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. 이 선덕대가 바로 관덕정 뒤뜰이다.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애각을 찾아볼 수 있다. 이 월대의 바로 서쪽에는 광해군



| 관덕정(觀德亭) 뒤편에 있는 선덕대(宣德臺) | 이 서쪽으로 월대동(月臺洞)이 있었고 여기가 바로 옛 궁지(宮趾)였을 추정이나오고 있다.

(光海君) 때 귀양살이하던 간옹(良翁) 이익(李瀾)의 적소(謫所)가 있었다.

한편 탐라왕국이 고려에 병합되고 나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성주청(星主廳)에 대해서는 『증보탐라지(增補耽羅誌)』를 비롯한 여러 기록이 지금의 제주우체국 자리로 밝히고 있다. 성주청은 뒤에 도주관부(都州管府)를 거쳐 진무청(鎭撫廳)이 되지만 이 진무청이 좌위랑(左衛廊)<sup>20)</sup>에 있었던 것이 명시되고 있으며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고증을 하고 있어 거의 틀림이 없다고 믿어진다.

20) 신문에는 좌아랑(左衙廊)이라고 되어 있다. 좌위랑(左衛廊)으로 바로 잡음.

## 궁지(宮趾) 앞에 관덕정(觀德亭)?

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이 진무청 자리가 옛 탐라의 궁지(宮趾)였을까 하는 문제다.

이응호(李膺鎬)의 『탁라국서(毛羅國書)』를 보면 궁전(宮殿)터는 “조선 조 때 세병헌(洗兵軒)이 있었고 좌우자전청상고(左右紫電靑霜庫)가 있었으며 지금 우편소(郵便所)가 있는 곳이다.”고 기록하고 있다. 『탐라성주유사(耽羅星主遺事)』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.

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전연 다르다. 조선시대 5백여 년 동안 고(高)씨에게 제주 목사(牧使) 자리 하나를 내주지 않았던 조선조가 궁전을 19세기까지 진무청으로 쓰게 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된다.

『노봉문집』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을 놓고 추정해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월대(月臺)가 있던 근처에 궁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. 조선시대 초에 최해산(崔海山)이 바로 그 귀퉁이에 웅장한 홍화각(弘化閣)을 짓고 또 몇 해 뒤에는 신숙청(辛淑晴)<sup>21</sup>이 바로 코앞에 관덕정을 지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.

그것은 그 당시로는 정책적 배려로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보면 제주성 이전에 무근성이 있었던 위치와도 거리 관계로 보아 일치되는 얘기다.

필자의 이런 생각은 충분한 조사를 하고나서 얻은 결론은 아니다. 며칠전 필자는 이 일대를 돌아보았지만 옛날에 있던 연못도 없어지고 건축물이 뺄뺄이 들어서 누구도 이곳이 궁지였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.

다만 구 시청(市廳) 자리에서 누각의 것으로 보이는 주춧돌 하나를 발



| 선덕대(제주시 삼도2동) | 『노봉문집』에 의하면 1737년 김정 목사가 관덕정 뒤에 있는 (탐라국 시대의) 월대를 수축 하고나서 선덕대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.

견했을 뿐이다. 한 번 여기에 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---

21) 신문에는 신숙청(辛叔淸)이라고 되어 있다. 신숙청(辛淑淸)으로 바로 잡음.